

로어와 조선어품사들의 대비에서 제기되는 몇가지 특성

유철구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우리가 외국어를 배우는것은 우리 혁명을 더 잘하기 위해서지 유식을 뽐내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우리는 외국어를 왜 공부하는가, 외국어를 배워 어디에 써먹어야 하는가 하는것을 똑똑히 알고 공부하여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를 배워도 제정신을 가지고 똑바로 배워야 합니다.》(《김정일전집》 제1권 220~221페이지)

외국어교육을 더욱 발전시키는데서 해당 외국어를 모국어와 대비하여 연구분석하는 데서 제기되는 이론적문제들을 옳게 해결하는것이 매우 중요하다.

언어들의 대비는 언어적단위와 개별적단어부류에 따라 진행된다. 다시말하여 같은 단위에 있는 언어적단위들 그리고 개별적단어부류들 호상간의 대비를 진행하는것이 가장 일반화된 원칙이다. 이 경우 대비의 최대의 등가성이 보장될수 있고 대비에서 나타나는 공통점과 차이점을 정확히 찾아볼수 있다. 언어적단위로는 어음적단위, 의미적단위 등도 될수 있으며 개별적이고 구체화된 작은 어휘문법적단위 아니면 개별적단어부류의 가장 큰 갈래인 품사도 될수 있다.

이 글에서는 로어와 조선어품사들의 대비에서 제기되는 몇가지 특성들에 대하여 밝히려고 한다.

로어와 조선어품사들의 대비에서 제기되는 특성은 무엇보다먼저 두 언어의 일부 품사들이 부등가적으로 대응되는데서 나타난다.

우선 로어형용사와 조선어의 형용사, 관형사가 부등가적으로 대응된다.

품사대비에서는 등가적대응과 부등가적대응이 이루어진다. 로어와 조선어품사의 등가적대응은 로어와 조선어의 품사들이 가지고있는 대비의 기초가 질량적으로 같은 대응관계이며 대비의 기초인 어휘문법적표식에서뿐만아니라 품사분류에서 공통점이 많고 차이가 거의나 없는 대응관계이다.

문제는 로어와 조선어의 품사체계에서 등가적대응이 진행될수 없는 품사부류들의 대응 즉 부등가적대응이 성립되는 품사들에 관한것이 기본이다.

로어와 조선어품사의 부등가적대응은 로어와 조선어의 품사들이 가지고있는 대비의 기초가 질량적으로 다른 대응관계이며 대비의 기초인 어휘문법적표식에서뿐만아니라 품사분류에서도 공통점이 적고 차이가 많은 대응관계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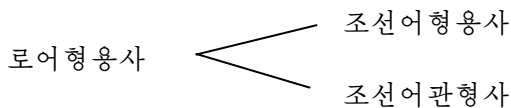
로어형용사와 조선어형용사는 어휘의미적특성에서는 공통점이 많으나 문법적특성 특히 문장론적기능에서와 품사분류에서는 차이도 있다. 한마디로 말하면 로어형용사의 기본 문장론적기능이 규정적기능이지만 조선어형용사의 기본문장론적기능은 술어적기능이다. 바로 이것으로 하여 로어형용사는 명사적단어부류에 속하고 조선어형용사는 동사와 함께 용언의 단어부류에 소속되고있다. 물론 로어형용사가 명사적단어부류에 소속되는것은 이외에도 명사와 같이 격변화체계를 가지고있는것이 그 근거의 하나이다.

그리고 로어형용사에서 경우에 따라 완전형이나 간단형이 술어의 기능을 수행하기도 하지만 그것이 이 품사의 기본기능이 아니다.

조선어형용사는 동사와 함께 용언에 속하는 품사이지만 서로 일련의 차이점을 가지고 있다. 우선 어휘의미적측면에서 나타나는데 형용사와 동사의 차이는 그것이 상태적이나 아니면 과정적이나 하는것이다. 예를 들어 단어 《강하다》는 성질적상태를 의미하고 행동성이 없으므로 형용사에 속하며 단어 《강화하다》는 비록 성질과 관계되지만 거기에 과정성이 부여된것만큼 동사에 속한다.

조선어형용사와 동사의 형태체계에서 토는 이 두 품사를 구별해주는데서 큰 의의를 가지고있으며 그러한 토들의 대부분은 종결토와 접속토이다. 이외에도 형용사와 동사의 차이는 문장안에서 단어결합측면에서와 단어만들기특성에서의 차이이다.

로조형용사의 부등가적대응은 분석적대응으로 된다. 다시말하여 로어형용사가 조선어형용사에 대하여 두개의 품사와 대응된다.



물론 로어형용사와 조선어관형사는 규정적기능에서뿐만아니라 의미적측면에서도 공통점이 있지만 차이점도 있다.

로어형용사와 조선어관형사는 결합되는 명사를 규정하는 기능적측면에서뿐만아니라 의미적으로 대비분석될수 있는 대상의 품사들이다. 조선어관형사와 로어형용사는 결합되는 명사와 같은 사물과 대상의 특징을 나타내기도 한다.

예: 새 세대 - новое поколение, 딴 마음 - другое сердце, 별 세상 - иной свет

그러므로 조선어에서 사물과 대상의 성질을 나타내는 관형사가 로어의 형용사로 대역될수 있는 등가적성질을 가진 품사로 된다는것을 알수 있다.

로어형용사와 마찬가지로 조선어관형사는 명사(명사적단어)앞에서 규정어의 역할을 수행하고있지만 일련의 차이점도 가지고있다.

이 단어부류들의 차이점은 우선 사물과 대상의 특징을 나타내는 의미폭과 섬세성에서 나타나고있다.

조선어에서 사물과 대상의 특징에 대하여 규정적의미를 나타내는 단어부류로는 관형사뿐만아니라 일부 토들의 도움으로 형용사, 명사, 대명사, 동사도 될수 있으며 어휘적의미의 폭이 좁거나 개수는 적지만 그 의미가 매우 섬세하다. 반대로 로어형용사(성질형용사)역시 사물과 대상의 특징을 규정적의미로 나타내지만 어휘적의미의 폭이 넓으며 단어수도 매우 많다. 로어형용사의 다른 부류들인 관계형용사나 소유형용사는 관계적의미나 소유의 의미를 표시하는것으로 하여 조선어형용사와의 대비에서는 무대응물로 되며 기본등가적대응물은 성질형용사이다.

이 단어부류들의 차이점은 또한 기능과 형태에서도 나타나고있다.

조선어관형사는 사물과 대상의 특징을 오직 규정해줄뿐이며 서술형을 가지지 않지만 로어형용사는 규정어로 될뿐만아니라 술어로도 된다.

예: Сапоги велики. (장화가 크다.) Вода чиста. (물은 깨끗하다.)

그리고 조선어관형사는 형태변화가 없는 품사라면 로어형용사는 결합하는 명사의 성,

수, 격에 따라 형태변화를 하는 품사로 되고있다.

이 단어부류들의 차이점은 또한 단어조성적측면에서도 나타나고있다.

보통 로어형용사는 축소, 애칭, 확대의 의미를 가진 형용사들을 파생시킬수 있다.

례: тонкий — тонечкий, здоровый — здоровенный, новый — новенький

조선어관형사에는 품사전환의 방법으로 명사들이 생겨나고있다고 볼수 있지만 의도적인 조성은 극히 적고 《이까짓, 요까짓, 저까짓, 조까짓》등과 같은 경우가 있을뿐이다.

로어형용사에서는 비교급, 최상급의 형용사, 추상명사 등을 만들수 있지만 조선어관형사는 비교급, 최상급이 만들어지지 않는다.

례: · широкий—более широкий, шире, широчайший, широкость

· молодой—моложе, моложайший, молодость

일부 조선어관형사들은 단어조성에서 흔히 앞붙이로서의 기능을 수행하며 뒤에 오는 명사와 밀착되어 쓰이고있다.

례: 새 - 새해, 새옷, 새날, 새것, 새집

온 - 온밤, 온몸

각 - 각자

모든 - 모든것

조선어관형사에는 어떠한 토도 붙을수 없으며 문장에서 오직 규정어가 될수 있다. 그리고 관형사는 하나의 단어부류로 되지만 앞붙이는 단어부류가 아니라 단어의 하나의 부분에 지나지 않는다.

례: 단 하루사이에 (관형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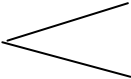
단층 (앞붙이)

새 자동차, 새 기업소 (관형사)

새해 (앞붙이)

또한 로어대명사는 조선어의 대명사, 관형사와 대응된다.

로어대명사는 조선어대명사, 관형사와의 대비에서도 서로 부등가적대응관계를 이룬다.

로어대명사  조선어대명사
조선어관형사

로어대명사와 조선어관형사는 전체적으로 대응되는것이 아니라 로어대명사의 한 부류인 규정대명사와 기본적으로 대응되며 여기에서도 의미문법적으로 공통점과 차이점을 가지고있다. 이 단어부류들의 공통점은 명사(명사적단어)앞에 쓰이면서 명사와 직접 결합되어 그것들을 규정하여주는 기능을 수행한다는것이다.

례: 온 학급, 모든 분야, 새 거리

весь мир(전세계)

Эта самая школа (바로 그 학교)

В нашей стране вся власть принадлежит народу. (우리 나라에서는 모든 주권이 인민에게 있다.)

위의 실례에서 볼수 있는바와 같이 조선어관형사들인 《온, 모든, 새》는 명사(학급, 분야, 거리)의 앞에서 명사와 결합되어 쓰이며 로어규정대명사들 《весь, самая, вся》들도 역시 명

사 《мир, школа, власть》 등과 직접 결합되어 쓰이면서 규정어의 기능을 수행하고있다.

이 단어부류들의 차이점은 우선 형태론적특성에서 나타나고있다.

형태론적측면에서 보면 조선어관형사는 언제나 하나의 형태를 가지고있는 즉 형태변화가 없는 단어부류라면 로어의 규정대명사는 결합되는 명사(명사적단어)의 성, 수, 격에 따라 형태변화를 하는 단어부류이다.

례: 새 세기, 새 세대, 새 규정, 새 품종, 어느 사람, 어느 나라,

어느 물건, 허튼 말, 허튼 소리, 허튼 규정

всякий раз (매번)

всякие товары (온갖 상품들)

без всякой причины (하등의 이유도 없이)

вся школа (온 학교)

우의 례에서 보는것처럼 조선어관형사 《새, 어느, 허튼》은 결합되는 단어가 어떤 단어인가에 관계없이 그리고 아무러한 형태변화가 없이(그 어떤 토도 붙지 않고) 그대로 결합되어 쓰일수 있지만 로어의 규정대명사인 《всякий》와 《весь》는 결합되는 단어가 남성인가, 녀성인가, 중성인가에 따라서 그리고 단수와 복수의 해당하는 격에 따라서 형태변화를 한다. 그리고 규정대명사앞에 오는 전치사들이 요구하는 격에 따라서도 형태변화를 한다.

이 단어부류들의 차이점은 또한 문장론적기능에서 표현되고있다. 조선어관형사는 의미적측면에서 보면 보다 단순하고 규정적의미 하나만을 가지고있지만 로어의 규정대명사는 그에 비하여 여러 의미들을 가지고있는것들이 많으며 지어는 규정적기능뿐아니라 명사적기능도 수행하고있다.

관형사 《여러》, 《온》, 《웬》 등은 오직 규정어적기능을 수행하고있으며 다른 품사들과의 다의적관계는 드물며 더우기 다른 품사들의 기능을 가지고있는것을 찾아보기 힘들다.

하지만 로어의 규정대명사 《весь》는 명사적기능도 가지고있으며 이와 같은 특성은 《всякий》를 비롯한 다른 규정대명사들에서도 흔히 찾아볼수 있는 특성이다.

례: Говорят всякое. (별의별것을 다 말하고있다.)

Всякое случается. (별의별 일이 생기고있다.)

우의 례문들에서 로어규정대명사는 조선어의 관형사와 달리 주어와 보어의 위치에서 명사의 기능을 수행하고있다.

조선어에서는 관형사가 명사와 같은 기능을 수행한다면 그것은 벌써 관형사가 아니라 합침말(례: 모든것, 새것)의 한 구성요소로 된다.

이 단어부류들의 차이점은 또한 품사체계측면에서도 나타나고있다. 관형사는 문법적 형태를 품사분류의 하나의 기준으로 설정하고 《수식》이라는 개념을 《규정》과 《꾸밈》으로 나누어서 분석하고있는 조선어에서 부사와 마찬가지로 개별적인 품사를 이루고있지만 로어의 규정대명사는 대명사라는 품사의 테두리안에서 개별적으로 존재하는 단어부류에 지나지 않는다. 그러나 총체적으로는 로어대명사가 조선어의 대명사, 관형사와 서로 대응되는것만큼 분석적대응으로 된다.

로어와 조선어품사들의 대비에서 제기되는 특성은 다음으로 로어의 보조품사들과 조선어의 일부 단어부류들이 서로 의미상 등가적으로 대응되는데서 나타난다.

로조품사대비에서는 무대응어관계가 이루어질수 있다. 다시말하여 로조품사대비에서

무대응어란 대상어(조선어)의 품사들에 대응하여 대비될수 있게 마련되지 못한 언어적단위 즉 개별적인 품사를 말한다. 조선어의 품사에 비하여 로어품사에서 무대응어는 전치사, 조사, 접속사이고 반대로 로어품사에 비한 조선어의 품사에서 무대응어는 관형사이다. 두 언어의 품사대비에서 무대응어가 존재하는것은 해당 언어의 역사적발전과정의 특수성과 형태구조적특징, 그 언어를 사용하는 해당 민족의 고유한 민족적특성에 그 원인을 두고있다. 그러므로 로어품사체계에 존재하고있는 해당 보조품사들에 대한 옳은 대역을 주기 위하여서는 조선어에서 의미적등가성을 보장할수 있는 대응물들이 필요하게 되고 이것들로는 조선어의 발달된 토를 비롯한 여러가지 형태의 단어부류가 될수 있다.

로어의 보조품사부류들은 자립품사부류들과 다른 일련의 본질적특성을 가진다.

이 품사부류들은 명명적기능이 없다. 즉 보조품사부류들은 명사, 형용사, 동사 등에 고유한 현실의 대상, 현상, 표식, 과정을 표시하지 않고 문장 전체나 개별적인 자립적단어에 이리저리한 의미를 부여한다. 이 단어들은 현실세계와 련관된 개념을 나타내는데서도 개별적으로 사용되지 않는다. 즉 자립적단어와 결합되어서만 쓰일수 있다.

그리고 이 품사부류들은 명명적기능을 거의나 상실한것으로 하여 문장성분으로 되지 못하며 문장들에서 문법적수단으로만 된다. 예를 들어 전치사는 다른 단어와의 결합관계를 나타낸다.(шёл по городу) 접속사는 어조로 전달되는 단어와 문장들간의 일반적련계를 설정한다.(Книги и журналы; Домой он вернулся поздно, потому что много занимался в библиотеке.)

이외에도 이 품사부류들은 자립적단어부류들이 가지고있는것과 같은 어휘적의미나 문법적의미를 가지지 못한다. 보조적단어들의 어휘적의미와 문법적의미가 거의나 일치하므로 어휘와 문법의 경계안에 놓여있는 동시에 단어와 형태부의 경계상에 있다. 그리고 이 부류의 단어들가운데는 의미적자립성과 문장론적독자성이 없고 자립적단어들이 가지고있는것과 같은 력점을 가지지 못한 단어들도 있으며 단음절로 구성되었거나 또는 음절을 이루지 못하는 단어부류도 있다. 그러므로 로어의 보조적단어들이 조선어의 어떤 단어부류들과 대응되는가를 구체적인 언어실천속에서 심화시켜야 한다.

우선 로어전치사와 조선어의 일부 단어부류가 등가적으로 대응될수 있다.

로어전치사는 문장속에서 명사를 비롯한 다른 명사적단어들과의 각이한 관계를 나타내는 보조적단어를 말한다. 로어전치사는 명사, 대명사, 명사화된 형용사 그리고 수사의 사격형태들과의 관계, 동사, 명사, 대명사, 형용사, 드물게는 부사들사이의 문장론적관계를 표시한다.

예: ключ от комнаты, блин с мясом, вредный для здоровья, трое из вас, выйти из комнаты, приходил к нам ...

로어전치사의 고유한 의미는 사물과 대상에 대한 명명을 표시하는 격변화하는 단어의 사격형태와의 결합을 통하여서만 나타난다. 전치사는 형태론적으로는 형태변화가 없고 문장론적으로는 문장성분의 기능을 하지 못하며 어음론적으로는 많은 경우 자체의 력점을 가지지 못하는 비자립적인 품사이다.

의미론적측면에서 보면 로어전치사는 자기의 어휘적의미와 문법적의미를 동시에 표현하고있다. 격의 의미는 전치사의 문법적의미의 표현형식이고 공간관계, 시간관계 등의 의미적요소들은 그의 어휘적의미표현으로 된다. 그러므로 명사의 동일한 격형태와 결합되는 각이한 전치사들은 각이한 의미로 나타날수 있다.

어휘적다의성의 요소들은 로어의 전치사들에게 있어서 아주 특징적이며 데. 엔. 우샤 꼬브가 편찬한 《로어주석사전》(2001년판)에 의하면 로어에 전치사는 28개이며 전치사 с는 23개의 의미, 전치사 в는 21개의 의미를 가지고있다.

로어전치사와 조선어의 동사규정형을 등가적단위로 대응시켜볼수 있다. 즉 로어전치사와 함께 쓰이는 로어의 불일치규정어에 조선어의 동사규정형이 대응되기도 한다. 로어의 불일치규정어에 조선어의 동사규정어를 대응시키는것은 형식상 조선어동사를 다른 문법적수단으로 대치시킨다는것을 의미한다.

《Письмо к сыну》에 가장 적중한 대응물은 《아들에게 보내는 편지》로 될수 있으며 이 경우 전치사 《к》는 조선어동사의 의미를 《내포》하고있다고 볼수 있다.

《전치사+사격》형으로 대응할수 있는 조선어동사규정형의 전형적인 몇가지 부류를 보면 다음과 같다.

— 《к + 명사여격》형

이 형에는 방향, 간접객체의 의미를 가진 동사적단어로 확대된 규정형이 대응될수 있다.

подарок к другу — 친구에게 보내는 선물

дорога к университету — 종합대학쪽으로 가는 길

— 《с + 명사조격》형, 《в+명사전치격》형

портфель с романом - 장편소설책을 넣은 가방

молодой человек в кепке-모자를 쓴 젊은이

— 《в(на) + 대격》형

окна на юг — 남쪽으로 난(향한) 창문

дверь в комнату — 방안으로 들어가는 문

— 《о + 전치격》형

이 형태에는 주로 사유와 제기되는 문제와 관련되는 동사의 규정형태들이 쓰인다.

мысль о открытии — 발견할 생각

вопрос о разработке шахт — 탄광을 개발할데 대한 문제

이상에서 본바와 같이 로어의 《전치사+사격명사》형에는 조선어동사규정형이 대응될수 있다는것을 알수 있다. 그리고 로어전치사의 많은 부류는 조선어의 주격토를 제외한 다른 격토들과도 대응할수도 있고 《부터, 까지》와 같은 도움토들과도 서로 의미적으로 대응될수 있다.

예: парень из города — 도시에서 온 청년 (위격토)

На стадионе состоялся матч. — 경기장에서 경기가 진행되었다. (위격토)

Я получил письмо от отца. — 아버지에게서 편지를 받았다. (위격토)

Готовиться к экзамену. — 시험준비를 하다. (대격토)

с утра до вечера — 아침부터 저녁까지 (도움토)

로어전치사는 비교적 단순하고 제한된 의미를 가지지만 조선어로는 형태적다양성과 복잡성으로 하여 로어전치사의 의미적표현에 비해 그 표현성이 훨씬 매우 이채롭고 높다.

로어문장 《Это не тебя, а Чхор Су спрашиваю》(변종 《...не у тебя, а у Чхор Су...》)을 조선어로 대역하면 다음과 같은 류형들이 나타날수 있다.

예: ① 이것은 너에게 아니라 철수에게 묻는 말이다.(격토)

② 이것은 네가 아니라 철수에게 묻는 말이다.(격토+격토)

③ 이것은 너에게가 아니라 철수에게 묻는 말이다.(격토+격토)

④ 이것은 너한테 아니라 철수에게 묻는 말이다.(격토)

⑤ 이것은 너한테가 아니라 철수에게 묻는 말이다.(격토+격토)

또한 로어접속사와 조선어의 일부 단어부류가 등가적으로 대응될 수 있다.

로어접속사는 문장성분들간의 문장론적관계나 복합문의 문장들 및 개별적인 문장들간의 문장론적관계를 나타내는 보조품사부류이다. 접속사는 문장에서 일정한 위치를 차지하나 형태변화를 하지 않으며 문장론적으로 단어결합능력이 없으며 문장성분의 기능도 없다. 로어접속사는 자립적단어부류들과는 달리 문장에서 일정한 위치를 차지하더라도 그 위치가 매우 자유롭지 못하고 엄격히 제한되어있다. 즉 일정한 문장론적단위들의 문장론적관계를 실현하여주는 자리밖에는 그 어떤 다른 자리에도 놓일 수 없다.

접속사는 로어의 보조품사부류들가운데서도 특수한 자리를 차지한다. 접속사는 전치사와 그 기능과 역할에서 본질적인 차이를 가지고있다. 물론 접속사와 전치사는 다 관계적 의미를 가지고있다. 그러나 전치사는 문장안에서 서로 다른 두 단어들사이의 지배와 종속의 관계를 실현하여주는 보조적단어라면 접속사는 문장에서 쓰이는 경우 격지배능력이 없으며 문장과 같은 단위들의 문장론적관계를 실현해주는 보조적단어이다. 그리고 접속사가 복합문을 이루는 풀이단위들사이의 논리의미적관계를 맞물려준다면 전치사는 풀이단위들을 연결할 수 있는 기능은 전혀 없으며 개별적성분사이의 관계를 맺어주는 기능만을 가지고있을 따름이다. 다시말하여 로어접속사의 문법적의미는 문장론적단위들의 련계, 그들사이의 문장론적련계의 특징에 대한 일반적인 지적이다.

로어접속사들의 어휘적의미는 문장론적관계의 구체적류형에 대한 지적 즉 공간, 시간, 목적, 원인, 규정, 비교 등의 의미와 그의 빛같이다.

로어접속사에 대응한 형태로는 조선어에서 단어나 진술단위들사이의 논리적결합관계를 나타내는 가장 전형적인 언어수단인 접속도를 포함한 일부 자리(위치)토와 접속부사, 문장부사 등이 될 수 있다.

조선어의 자리토(격토, 규정토, 상황토, 접속토 등)는 문장안의 단어나 단어결합을 문법적으로 조직화하며 사상감정표현의 기본진술단위인 문장까지도 이어주지만 그 이상의 단위 즉 문장이상의 단위들을 맞물려주지 못한다.

로어의 접속사들인 《раз》, 《и》와 접속사의 특수한 부류인 《который》, 《кто》 등에 조선어의 이러한 자리토가 있는 단어나 단어결합, 문장이 대응형태로 될 수 있다.

례: Он работает и учится. — 그는 일하면서 공부한다.(접속토)

Тот, кто учится в институте, вернулся. — 대학에서 공부하던 그가 왔다.(규정토)

로어의 병렬접속사 《и》와 《или》에 해당되는 대응물로는 조선어의 접속부사 《및》, 《겸》 등과 같이 구체적인 어휘적의미가 없이 단어나 단어결합을 맞물려주고 논리결합적 의미만을 가지고있으나 문장과 그 이상의 단위들을 이어주지 못하는 접속수단들이 해당되는 대응물로 된다.

례: учеба и ее метод усвоения — 학습 및 그 습득방도

председатель и секретарь — 위원장 겸 비서

그러나 접속부사 《따라서》는 어휘적의미를 가지고 개별적인 문장의 내용표현에 리용

되는 경우도 있지만 개별적문장들사이의 논리적연관을 이어주는 경우도 있으므로 접속수단으로 되고있다.

례: 관개용수는 우리 식으로 창조한 자연물흐름길을 따라서 이동한다.

따라서 문제의 본질은 우리들의 사업태도에 달려있다.

로어접속사에 대응한 형태로는 조선어의 문장부사 역시 해당하는 형태로 될수 있다. 로어의 종속접속사들인 《если, если бы, не смотря на то что, как бы ни ... -то》등에 조선어의 문장부사 《만일, 만약, 비록, 아무리》 등이 문장전체와 관계를 가지면서 말하는 사람의 여러가지 태도를 나타내므로 대응될수 있다고 할수 있다.

례: Если приедет отец, то я скажу. — 만일 아버지가 오면 내가 이야기하겠다.

Где бы ни окажись, я не забуду вас. — 어디에 간다 해도 당신들을 잊지 않겠다.

로어접속사들인 《и, а, но, однако...》 등에는 지시대명사 《이》, 《그》가 그것을 말뿌리로 하여 구성된 용언의 줄기에 여러가지 위치도와 일부 도움토가 붙어서 이루어진것들이 대응한 형태로 될수 있다. 이 접속수단들은 개별적인 문장은 물론 그 이상의 진술의 단위들을 이어주는것이 특징이다.

조선어의 토들이 문장안의 단위들을 이어주는 문법적수단으로서 정연한 체계를 이루면서 문법적의미를 그대로 가지고 지시대명사나 그것에 기초하여 이루어진 단어의 줄기에 붙어 접속수단을 이루며 또 그것으로 하여 접속수단자체는 토체계와 같은 체계를 가진다.

례: 면서 ... 이러면서, 그러면서

지만 ... 이렇지만, 그렇지만

그러므로 로어의 접속사에 비한 조선어의 등가적언어단위들은 일부 문장부사들과 지시어 《그》, 《이》에 기초하여 그리고 일부 토의 도움으로 구성된 접속수단들이라는것을 알수 있으며 그중에서도 조선어의 형태구조적특성에 맞게 토의 역할이 매우 크다는것이 더욱 명백해지고있다.

또한 로어조사와 조선어의 일부 단어부류가 등가적으로 대응될수 있다.

로어의 조사는 대상적의미를 상실한 단어로서 형태변화를 하지 않고 단어나 단어결합 또는 문장에 양태성의 문법적의미를 부여하면서 특수한 문장론적기능을 수행하는 보조품사이다. 즉 문장의 부분 또는 하나의 웅근 진술적단위에 각이한 의미—양태적이고 감정—정서적인 표현의 의미를 전달하는 보조적단어부류이다.

로어에서 조사는 다른 품사들에 비해 그 수가 적지만 입말언어행위를 비롯한 언어실천에서 사용빈도수가 매우 높은 언어적표현수단이다.

로어에서 순수 조사의 수는 제한되어있지만 일부 자립적단어부류들이 완전히 혹은 문맥적조건에 따라 조사의 기능을 수행하는것으로 하여 그 범위가 넓은것이 그자체의 독특한 하나의 현상으로 되고있다. 다시말하여 아직 해당 품사로부터 의미상 완전히 고립되지 않았고 그 품사의 문법적의미를 보존하고있는 단어 또는 단어결합들이 조사의 기능을 수행하는것으로 하여 그 범위는 더욱 커가고있다.

의미적특성과 표현정서적 및 양태적빛깔을 나타내는 로어조사에 조선어의 토, 대명사, 수식어와 일부 관형사와 형용사 등과 같은 어휘적수단들이 대응될수 있다.

로어지시조사 вон, вот, вот что, это, во 등에 조선어의 부사와 대명사 등이 대응된다.

례: Вот что я хотел сказать тебе. — 바로 이것을 너에게 말하고싶었다.(부사, 대명사)

Вон он идет. — 저기 그가 온다.(부사)

규정조사 именно, как раз, приблизит ельно, почти, ровно, точно, чуть не, чисто, прямо, подлинно 에 조선어의 부사가 보통 대응된다.

례: Тебя -то мне как раз (именно) и нужно. — 자네가 바로(마침) 나한테 필요하네.(부사)

Тогда я был прямо ребенком. — 그때는 내가 완전히 어린애였다.(부사)

제한조사 всё, единственно, исключительно, лишь, только, уже, только лишь, хоть, хотя бы, просто, всего, всего - навсего, же, даже и, ну, еще, решительно, ведь, определительно ...에 조선어의 토, 부사가 대응될 수 있다.

례: Работа началась всего несколько дней назад. — 작업은 기껏해서 며칠전에 시작되었다.(부사)

Эти слова даже выговорить страшно. — 이 말을 꺼내기 조차 무시무시하네.(도움토)

Где же ты сейчас? — 너는 지금 도대체 어디에 있느냐?(부사)

표현정서적빛깔을 나타내는 조사들인 что за, как, вот как, куда, где там, куда там, ведь, куда как, страсть, что там, то-то, вот, ну и 등에 조선어의 부사들이 많이 대응될 수 있다.

례: То-то я не заставил его ! — 그래서 내가 그를 만날 수 없었군!(부사)

Что за бумаги он оставил ? — 그가 도대체 무슨 서류들을 남겨놓았어?(부사, 관형사)

Как нет? — 왜 없어?(없다니?)(부사)

로어양태조사에는 의지를 나타내는 조사들인 бы, ну, дай, давай, пускай, пусть, да-ка 등과 가능성, 필요성, 의심, 위구심 등을 나타내는 조사들인 было, будто, как будто, будто бы, едва ли, словно, точно 등이 있다. 이 조사들에 조선어의 종결토, 상황토 등과 부사들이 대응되기도 한다.

례: Пусть(пускай) идти сюда. — 이리로 오란다고 하시오.(종결토 — 낮춤)

Покурить бы теперь. — 이제는 담배나 피웠으면 좋겠구나.(종결토 — 낮춤)

Он молчит, будто ничего не знает. — 그는 마치 아무것도 모르는것 처럼 침묵을 지키고있다.(상황토)

Она обернулась, как будто бы хотела что-то сказать. — 그 녀자는 마치 그 무엇을 말하려는 듯이 돌아섰다.(상황토)

이외에도 로어조사에는 긍부정을 나타내는 조사들인 да, так, точно, как же, ага, угу, непременно, пожалуй, не, ни, нет, вовсе не, далеко не, отнюдь 등이 있으며 조선어에서는 이에 도움토와 종결토 그리고 형용사 등이 대응될 수 있다.

례: По мне пожалуй. — 나는 찬성이요. (종결토)

Он далеко не глуп. — 그는 결코 머저리가 아니다. (부사, 형용사)

Ни капельки не боюсь. — 조금도 무섭지 않다.(도움토, 형용사)

로어에서 다른 품사에 소속되어있는 일부 단어들도 조사의 기능을 수행하고있다. 대립관계를 나타내는 구조의 문장에서 단어 сам은 자기의 대명사적의미를 약화시키며 흔히 미완료태동사와 결합하여 문장에서 조사의 기능을 수행하기도 한다.

례: Он работал, а сам пел. Идёт, сам плачет.

이 문장들에서 сам은 자기의 대명사적의미를 최대한 약화시키면서 한사람에 의하여 수

행되는 대조적인 두 행동의 시간상일치를 강조하는 조사의 독특한 기능으로 쓰이고있다.

로어조사에 많이 대응될수 있는 조선어의 단어부류는 부사가운데서도 양태부사이다. 양태부사는 문장전체와 관계하면서 외판성분으로 되는 부사로서 조사일반이 표시하는 확신, 가정, 추측, 의혹, 요구 등과 같은 양태성을 부여하고있다. 진술전체에 대하여 가지는 양태성의 표현은 《물론, 결코, 정녕, 설마, 비록, 아마, 설사, 부디, 제발, 꼭, 기어이, 마땅히, 반드시》 등과 같은 양태부사들이 로어의 조사부류에 많이 대응되는 적중한 대응물의 하나이다.

특수한 경우이지만 로어조사중에서 상대적으로 다의성이 적은 합성조사 《того и глядь》에 조선어의 명사가 대응되기도 한다.

례: Того и гляди умрёт. (당장이라도 죽을것 같다.)

Забудется того и гляди. (당장 잊어버릴것 같다.)

이와 같이 로어와 조선어 일부 품사들과 단어부류들의 대비에서 나타난 특성들은 두 언어의 역사적발전과정과 류형적인 분류에서 이루어지는 특이한 현상으로서 언어습득과 활용에서 반드시 극복하고 숙련시켜야 할 문제의 하나이다.

우리는 앞으로 로어와 조선어와의 대비에서 나타나는 여러가지 언어적현상들의 특성을 옹게 연구분석함으로써 새 세기의 요구에 맞게 외국어교육을 더욱 발전시키는데 적극 이바지하여야 할것이다.

실마리어 로어품사, 등가적대응